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힐링 파트너

참으로 각박한 세상입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고, 누군가와 비교당해야 하고, 누군가를 앞서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거나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눈에 제일 자극을 적게 주면서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는 색깔이 무엇일까요? 바로 초록색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심신의 안정을 찾으러 산으로 갑니다. 오르고 또 올라서 정상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발밑에 펼쳐진 푸름과 코끝을 자극하는 피톤치드 향을 느끼며 쌓인 피로를 풀곤 합니다.

저는 힐링스페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예술을 통한 힐링의 잠재력과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직접 경험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객석'이 가진 예술에 대한 포용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힐링의 잠재력에 끌려 매달 빼놓지 않고 한 페이지씩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미술과 음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믿습니다. 예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간의 심금을 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매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술과 음악 모두를 아우르며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독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기에, '객석'은 최고의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객석'의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면 왠지 제 코끝에 상쾌한 피톤치드 향기가 퍼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좋은 힐링 파트너인 '객석'을 지면이라는 한정된 매체로만 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상으로도 '객석'의 주옥같은 기사를 접할 수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항상 독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객석'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더 넓게 힐링의 향기와 멜로디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